

◆사례발표

시민·행정이 함께 진행하는 지역복지 시스템의 형성



야자키 가즈히로 (矢崎 和広)

나가노현(長野縣)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前)지노(茅野市) 시장

(1) 관민협동(官民協動)의 「파트너십의 마을만들기」

- 나가노현(長野縣) 지노시(茅野市)는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인구 약 57,000명의 소도시입니다.
- 지노시의 마을만들기의 기본적인 생각은, 시민·민간주도, 행정지원에 의한 공민협동의 「파트너십의 마을만들기」에 집약되어, 자립한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마을만들기의 주역이 되어 정책을 입안하고 행정이 그것을 지원해 가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역복지, 생활환경, 어린이·가정지원을 기본틀로 하는 3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마을만들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 「파트너십의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민과 행정이 대등한 관계를 시스템으로서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교육의 마을만들기에 있어서는, 정책 입안은 시민·민간이, 예산 결정은 행정(시장)이,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관민협동하는 것이 됩니다.

(2)플랜 책정으로부터 제안·실천까지를 시민참가로

- 1996년3월 「모두 같은 하늘 아래」를 표어로 고령자의 개호 문제뿐만 아니라, 어린이·가정지원이나 장애아·자의 케어도 포함시켜, 시민과의 협동에 의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지노시 독자적 지원의 종합적 시스템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활동 조직 「지노시의 21세기의 복지를 만드는 모임」(통칭:복지21지노(茅野))가 발족했습니다.
- 복지 21지노의 활동과 조직은, 계획을 책정할뿐만 아니라, 지역복지추진을 향해서 제안과 스스로 실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 실천하는 제안 집단”

(3) 『복지 21 비너스 플랜(지노시지역 복지계획)』의 개요

- 2000년3월에 책정된 『복지 21비너스 플랜(지노시(茅野市)지역 복지계획)』은 시민·민간과 행정이 구축해 가는 「복지로 마을만들기」의 기본계획이며, 보건·의료·복지, 평생교육등의 관련 시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계획의 이념을 구현화하기 위한 시민·민간이나 행정이 임해야 할 방침이나 연계의 기본 자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 이 플랜의 가장 기본적인 틀은, 「보건복지 서비스는, 될 수 있는한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고 싶다」라는 시민의 요망에 응하여, 보다 세심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내를 4개의 중학교 단위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보건복지 서비스센터」를 설치한 것입니다.

(4)공민협동으로 진행시키는 보건복지 서비스센터

- 4개의 보건복지 서비스센터는, 가까운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의 거점으로, 어린이·가정, 장애인, 고령자의 지역자립 생활 지원이나, 지역에 있어서의 건강 지키기·삶의 보람만들기에 관계되는 상담을 받거나, 보건복지 서비스의 제공, 자원봉사 활동등 주민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습니다.
- 또, 시민·민간과 행정이 협동하여 운영하는 보건복지 서비스센터는 보건·의료·복지에 관한 시의 직원(保健師, 소셜워커, 간호지원 전문원) 이외, 스와(諏訪) 중앙병원의 직원, 사회복지협회의 지역생활 지원계의 직원이나, 민간사업소의 간병·간호 스태프등이 팀을 짜서,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활 과제·지역과제의 발견과 해결에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주민 한 사람 한사람의 토탈케어(total care)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또 지역자립 생활 지원 시스템의 확립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의 「집합소기능」으로 「지역 교류센터」를 마련하고, 가까운 생활권에 있어서의 포멀(Formal) 서비스와 인포멀(informality) 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계에 의한 구역내의 소지역 지지 활동이나, 자원봉사 활동의 전개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 서비스센터의 기능 | | |
|----------------|-------------|-------------|
| ●종합상담창구 | ●진료소 | ●케어 매니지먼트 |
| ●주간보호서비스 | ●방문 간호 스테이션 | ●방문 간호 스테이션 |
| ●보건활동·건강 상담 | ●어린이·가정지원 | ●장애인 지원 |
| ●시민활동의 지원 | ●지역 교류센터 | |

(5)보건복지 서비스센터의 효과와 노인의료비의 추이

- 2000년4월에 보건복지 서비스센터가 개설된 이래 다양한 전문직에 의한

팀 어프로치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면서 가족을 지지하고, 한사람의 일생을 다면적·계속적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되는 등, 이전과 같은 상하관계로만 움직이는 행정의 폐해가 확실하게 해소되고 있습니다.

- 실제로 상담 건수나 가정 방문의 건수는 시청에 창구가 있었을 때보다 몇 배나 늘어 보건복지 서비스센터가 행하는 역할이 꾸준히 시민 속에 인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또한 시민과 행정과 의료기관이 협동하는 건강 지킴이를 상시 전개 (특히 생활습관병 대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노시의 2005년 한 사람당 노인의료비는, 연간 578, 174엔으로, 전국에서 의료비가 가장 낮은 시의 하나입니다. (전국평균은 819, 335엔) 이런것들로 볼때 지노시에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고령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노시 한사람당 노인의료비의 전환 (단위:엔)

| | 1998年 | 1999年 | 2000年 | 2001年 | 2002年 | 2003年 | 2004年 | 2005年 |
|--------------|---------|---------|---------|---------|---------|---------|---------|---------|
| 전국 | 800,649 | 832,108 | 757,866 | 756,618 | 729,407 | 745,951 | 778,958 | 819,335 |
| 나가노 (長野)현 | 612,612 | 642,795 | 594,213 | 602,141 | 596,558 | 614,127 | 634,990 | 672,987 |
| 지노 (茅野)시 | 606,596 | 650,421 | 555,287 | 568,828 | 543,222 | 539,670 | 559,580 | 578,174 |

프로필

야자키 가즈히로 (矢崎 和広)

나가노현(長野縣) 교육위원회 위원장
전(前)지노 (茅野市) 시장

경 력

- 1970년3월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정경학부 졸업.
같은 해 4월 sony에 입사, 8년간 재직. 주로 영업본부(현·SONY마케팅)에서 근무.
- 1977년 나가노현 지노시에 돌아와,
스와(諏訪) 화물자동차(주)등을 경영하며, (사)지노 청년회의소 이사장,
스와권 연방청년회의소협의회회장등을 역임.
- 1995년4월 지노시장에 당선.
주요 공직으로는, 나가노현 시장협의회 회장, 전국시장협의회 이사,
나가노현 시읍면직원공제조합이사장, 스와 중앙병원조합장, 지노시 사회복지협의회회장등을 역임.
- 2007년4월 지노시장 퇴임.
- 현재, 나가노현 교육위원회 위원장, 스와도쿄이과대학(諏訪東京理科大学) 객원교수, 스와 화물자동차(주) 대표 이사, 등.

◆事例発表

市民・行政がともに進める 地域福祉システムの形成



矢崎 和広 (やざき かずひろ)

長野県教育委員会委員長
前茅野市長

(1) 公民協働の「パートナーシップのまちづくり」

- ・長野県茅野市は日本のほぼ中央に位置する人口約57,000人の小都市です。
- ・茅野市のまちづくりの基本的な考え方は、市民・民間主導、行政支援による公民協働の「パートナーシップのまちづくり」に集約され、自立した市民一人ひとりがまちづくりの主役となり、政策立案し、行政がそれを支援していくという活動展開をしています。
- ・特に地域福祉、生活環境、子ども・家庭応援を柱とする3分野において積極的なまちづくりを展開しています。
- ・「パートナーシップのまちづくり」を推進するには、市民と行政の対等な関係をシステムとして確立する必要があります。福祉・環境・教育のまちづくりにおいては、政策立案は市民・民間が、予算決定は行政（市長）が、そして実行段階では公民協働で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2) プラン策定から提言・実践までを市民参加で

- ・1996年3月「みんな同じ空の下」を合言葉に高齢者の介護問題だけでなく、子ども・家庭支援や障害児・者のケアも含めて、市民との協働により出生から終末期までのライフスタイルに応じた茅野市独自の支えあいの総合的なシステムの在り方を検討するために、市民活動組織「茅野市の21世紀の福祉を創る会」（通称：福祉21茅野）が発足しました。
- ・福祉21茅野の活動と組織は、計画を策定するだけでなく、地域福祉推進に向けての提言と自ら実践する機能を持っているところに特徴があります。
 - ・・・“実践する提言集団”

(3)『福祉21ビーンズプラン(茅野市地域福祉計画)』の概要

- ・2000年3月に策定された『福祉21ビーンズプラン(茅野市地域福祉計画)』は市民・民間と行政が築いていく「福祉でまちづくり」の基本計画であり、保健・医療・福祉、さらに生涯学習などの関連施策を総合的に実施し、計画の理念を具現化するための市民・民間や行政が取り組むべき方針や連携の在り方が盛り込まれています。
- ・このプランの最も基本的な枠組みは、「保健福祉サービスは、できるだけ身近なところで利用したい」という市民要望に応え、よりきめ細やかな保健福祉サービスを提供するため、市内を4つの中学校単位に分け、各エリアそれぞれに「保健福祉サービスセンター」を設置したことです。

(4)公民協働で進める保健福祉サービスセンター

- ・4つの保健福祉サービスセンターは、身近な保健・医療・福祉サービスの拠点として、こども・家庭、障害児・者、高齢者の地域自立生活支援や、地域における健康づくり・生きがいつくりに関係する相談を受けたり、保健福祉サービスを提供したり、ボランティア活動など住民活動の拠点ともなっています。
- ・また、市民・民間と行政が協働して運営していく保健福祉サービスセンターは、保健・医療・福祉に関する市の職員（保健師、ソーシャルワーカー、介護支援専門員）のほか、組合立諏訪中央病院の職員、社会福祉協議会の地域生活支援系の職員や、民間事業所の介護・看護スタッフなどがチームを組んで、エリア内で発生するさまざまな生活課題・地域課題の発見と解決にそれぞれの専門性を生かしながら住民一人ひとりのトータルケアに取り組んでいます。
- ・また地域自立生活支援システムの確立を目指すために地域住民の「たまり場機能」としての「地域交流センター」を設け、身近な生活圏におけるフォーマルサービスとインフォーマルサービスの有機的な連携によるエリア内での小地域支え合い活動や、ボランティア活動の展開にも取り組んでいます。

| 保健福祉サービスセンターの機能 | | |
|-----------------|-------------|-------------|
| ●総合相談窓口 | ●診療所 | ●ケアマネージメント |
| ●デイサービス | ●訪問介護ステーション | ●訪問看護ステーション |
| ●保健活動・健康相談 | ●こども・家庭支援 | ●障害児・者支援 |
| ●市民活動の支援 | ●地域交流センター | |

(5)保健福祉サービスセンターの効果と老人医療費の推移

- ・2000年4月に保健福祉サービスセンターが開設して以来、多彩な専門職によるチームアプローチが日常的になされることによって、家族を支え、一人の一生を多面的・継続的に見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など、以前のような縦割り行政の弊害が確実に解消されてきています。
- ・実際に相談件数や家庭訪問の件数は市役所に窓口があった時より数倍に増え、

保健福祉サービスセンターの果たす役割が着実に市民の中に認知されつつあります。

・また市民と行政と医療機関が協働する健康づくりを常時展開（特に生活習慣病対策を積極的に展開）しています。茅野市の2005年の一人当たり老人医療費は、年間578,174円であり、全国で最も医療費の低い市の一つです。（全国平均では819,335円）。これらから茅野市には「医者いらず」の元気な高齢者の多いことがうかがわれます。

茅野市一人当たり老人医療費の推移

| | 1998年 | 1999年 | 2000年 | 2001年 | 2002年 | 2003年 | 2004年 | 2005年 |
|-----|---------|---------|---------|---------|---------|---------|---------|---------|
| 全国 | 800,649 | 832,108 | 757,866 | 756,618 | 729,407 | 745,951 | 778,958 | 819,335 |
| 長野県 | 612,612 | 642,795 | 594,213 | 602,141 | 596,558 | 614,127 | 634,990 | 672,987 |
| 茅野市 | 606,596 | 650,421 | 555,287 | 568,828 | 543,222 | 539,670 | 559,580 | 578,174 |

プロフィール

矢崎 和広 (やざき かずひろ)

長野県教育委員会委員長
前茅野市長

経 歴

- 1970年3月 早稲田大学政経学部卒業。
同年4月ソニーに入社し、8年間在職。
主として営業本部（現・ソニーマーケティング）に勤務。
- 1977年長野県茅野市に戻り、諏訪貨物自動車(株)他数社を経営する傍ら、
（社）茅野青年会議所理事長、諏訪圏連邦青年会議所協議会会長などを歴任。
- 1995年4月 茅野市長に当選。
主な公職としては、長野県市長会会長、全国市長会理事、長野県市町村職員共
済組合理事長、諏訪中央病院組合長、茅野市社会福祉協議会会長などを歴任。
- 2007年4月 茅野市長を退任。
- 現在、長野県教育委員会委員長、諏訪東京理科大学客員教授、
諏訪貨物自動車(株)代表取締役会長、ほか。